

LG화학 노기호 사장 서울대 특강

LG그룹 이공계 CEO 대거 참여 ... 중장기 전략 및 혁신방안 소개

LG화학 노기호 사장이 9월10일 서울대 응용화학부의 전공과목 <공학기술과 경영> 강좌에서 <기업경영과 인재>를 주제로 인재확보의 중요성, 이공계 선배로서 학창시절 및 직장생활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.

노기호 사장은 ▷화학산업 동향 ▷LG화학의 중장기 전략 및 혁신사례 ▷공학도의 비전 등에 대해 3차례 더 강의할 예정이며, 노기호 사장 외에 유철호·박규석·홍순용 부사장 등 LG화학의 주요 경영진도 강사로 참여한다.

강의는 응용화학부 3-4학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화학산업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3학점짜리 전공과목으로 80명 정원에 200명 가량이 수강신청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.

LG화학은 강의기간에 <LG화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적용 가능한 기술전략>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우수팀에게 장학금 지급과 중국 일주일 연수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.

LG 관계자는 “LG전자의 백우현 사장도 서울대 전기공학부의 <디지털산업과 기술동향> 정규강좌에서 강의하는 등 공학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LG 계열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들이 서울대 이공계 정규과목에 강사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09/09>